



죽비와 목탁

김성우 취재부장

buddhapia5@hanmail.net



### 선인장이 가시를 버린 까닭은?

“미국의 식물학자인 버뱅크(Luther Burbank, 1849-1926)는 늘 화초와 대화하는 것을 즐겼 습니다. 만물은 들을 귀가 있다 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이죠.”

세모(歲暮)를 앞둔 어느날, 우연히 듣게 된 CBS 심야 음악방송에서 DJ는 이런 오프닝 멘트를 날리고 있었다. DJ는 ‘가시 없는 선인장’을 탄생시킨 버뱅크가 식물에게 ‘생각과 감정이 전파된다’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말한 바 있다고 전했다.

“가시 없는 선인장을 만들어 내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는 동안 나는 ‘사랑의 진동’을 창조해 내기 위해 그 식물들에게 이따금씩 말을 걸곤 했다.

“너는 아무 것도 두려워 할 것이 없어. 그러니 방어를 위한 가시도 필요 없는 거야. 내가 너를 지켜주면 되지 않나?”

그랬더니 그 사막의 식물은 점차로 가시가 없는 변종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물론 DJ는 이 실험을 소개하며 “우리가 보고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고 받는다면 우리 마음에 가시가 뽑히고 독이 빠질 것입니다”라는 감동적인 해설을 덧붙이고 있었다.

이 방송을 청취하면서 떠오른 것은 성철 스님의 1988년 부처님오신날 법어였다. 스님은 “마루 밭의 명명어, 외양간의 얼룩이, 나는 새, 기는 짐승, 쉰는 바

위, 흐르는 물, 늙은이 젊은이 모두 함께 입을 열어 자기들의 생일을 축하합시다”라며, “부처님은 중생이 본래로 성불한 것, 곧 인간의 절대적 존엄성을 가르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노래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불교는 만물의 근원을 꿰뚫는 불성(佛性)사상과 삼계유심(三界唯心),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마음도리를 전하고 있지만, 정작 마음을 어떻게 잘 써야 하는지를 제시하지 못하는 듯하다. 반면 이웃종교들은 마음의 원리는 잘 모르지만, ‘사랑의 실천’이란 이름아래 구체적인 현실속에서 ‘말씀(법문)’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간에 화제가 된 <시크릿> <궁정의 힘> <비유> <내려놓음>과 같은 불교적인 내용의 베스트셀러들이 이웃종교인들에 의해 출판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불자들이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와 방하작(放下着)의 도리를 입에 올리는 동안 그들은 구체적인 현실속에서 마음도리를 응용해 선교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반성해 볼 일이다.

새해에는 모든 불자들이 한마음(一心) 도리를 이는데 그치지 않고, 깊이 깨달아 일상속에서 자재하게 쓸 수 있는 길을 이웃에게 제시할 수 있게 되길 기원한다.

이와 같이 불교는 만물의 근원을 꿰뚫는 불성(佛性)사상과 삼계유심(三界唯心),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마음도리를 전하고 있지만, 정작 마음을 어떻게 잘 써야 하는지를 제시하지 못하는 듯하다. 반면 이웃종교들은 마음의 원리는 잘 모르지만, ‘사랑의 실천’이란 이름아래 구체적인 현실속에서 ‘말씀(법문)’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간에 화제가 된 <시크릿> <궁정의 힘> <비유> <내려놓음>과 같은 불교적인 내용의 베스트셀러들이 이웃종교인들에 의해 출판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불자들이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와 방하작(放下着)의 도리를 입에 올리는 동안 그들은 구체적인 현실속에서 마음도리를 응용해 선교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반성해 볼 일이다.

새해에는 모든 불자들이 한마음(一心) 도리를 이는데 그치지 않고, 깊이 깨달아 일상속에서 자재하게 쓸 수 있는 길을 이웃에게 제시할 수 있게 되길 기원한다.

###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재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한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불교포탈 부다피아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온라인서적 예시어문

www.buddhanews.com www.buddhapia.com http://ad.buddhapia.com www.yosiamun.com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 현대불교 시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주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사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시작

## 명예회복심의위 불교위원 위촉...정부 후속작업 주목

1980년 신군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스님들을 강제로 집단연행하고, 병력을 동원해 전국 사찰 5700여 곳을 집합한 10·27법난(法難). 28년이 지난 2008년 초,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같은 해 하반기쯤 국무총리실에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설치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국방부의 밀어붙이기로 위원회 활동은 반년여 동안 지체됐다.

다행히 새해를 이틀 앞두고 위원회 내에서 불교계를 대표해 활동한 민간위원 7명이 위촉돼 1월부터는 본격적인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구랍 30일 국무총리실에서 10·27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11명을 위촉했다. 위촉된 불교계 위원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각 스님, 사찰부장 세영 스님, 탄허불교재단 이사장 보 스님, 동국대의료원 이명묵 원장, 호원대 조남진 초빙교수(예비회 장성불자), 전전주국대 허남오 총장(前 병무청장), 사랑의도시락박나이운동본부 윤원호 이사장(前 국회의원)이다. 정부측 위원으로는 국방부 차관, 문광부제2차관, 경찰청 차장, 보존처장 등 차관급 4명이 위촉됐다.

심의위원회는 2008년 3월 제정된 ‘10·27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



구랍 30일 위촉장을 받은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왼쪽부터 이명묵 동국대 의료원장, 허남오 前병무청장, 조남진 호원대 초빙교수, 삼보 스님, 한승수 총리, 원각 스님, 중앙신도회 윤원호 부회장, 세영 스님.

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조사 및 대상자 선정, 명예회복 및 보상, 역사관 건립 등 운영과 심사 전반을 책임지게 된다.

심의위원장으로 유력시 되는 10·27법난대책위원장 원각 스님은 위촉식 이후 가진 환담에서 “특별법 제정 이후 위원회 위촉 및 구성이 늦어졌지만 새해 들어 명예회복이 가능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조속히 사무처 등 실무진을 구성해 1월 초부터 종교화합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승수 총리는 “불교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대한 공권력 감압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며 “국민화합과 종교평화 실

현을 위해 정부 또한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0·27법난명예회복위는 민간위원 7명과 정부위원 4명으로 구성됐으며, 1월 7~8일경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운영 방안 및 사업방향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10·27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예산은 총 16억으로 당초 예산안보다 4억 증액됐다.

활동시한이 2년 밖에 안되는 10·27법난특별법은 시행령 제정 등 준비과정에서 사안마다 국방부와 의견 충돌이 벌어져 불교계 반발을 샀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구성된 첫 특위에 정부가 얼마만큼 적극적인 후속작업에 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성우·노덕현 기자

### 한국불교사회복지법인연합회 창립된다

#### 1월중 사단법인 설립...준비위원회에 혜총 스님

10개 불교계 복지법인 대표 스님들은 구랍 23일 롯데호텔에서 1월 중 사단법인 ‘한국불교사회복지법인연합회’ (가칭)를 설립하기로 결의했다. 한국불교사회복지법인연합회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기치 아래 교계 복지법인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회복지 정보 공유, 불교복지 전문성 강화, 사회복지인들의 정체성 확립 및 인재양성 등을 통해 불교복지의 위상을 높일 전망이다.

발기인대회에 참석한 법인 대표들은 동맹을 결의한 29개 법인 대표

전원을 준비위원으로 위촉하는데 뜻을 모으고, 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날 준비위원회는 위원장에 불국도 대표이자 조계종 포교원장인 혜총 스님을, 연꽃마을 대표이자 각 현 스님과 바라밀복지재단 대표이사 현고 스님을 부위원장으로, 이암 스님을 간사로 추대했다.

준비위는 2009년 1월경 정관과 창립 취지문을 마련하고 상반기에 창립총회를 열고 연합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상연 기자

### 리처드기어 한국불교 홍보대사 위촉 추진

#### 87개 템플 사찰 중 27곳만 외국인 숙박 가능

세계적인 영화배우 리처드 기어(사진)를 한국불교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협조를 받아 배우 장동건 씨를 불교문화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 자리에서 오 사장은 “외국인들에게 템플스테이가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87개 템플스테이 사찰 중 외국인 참여가 가능한 사찰은 27개에 불과하다.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협조를 통해 시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기관 스님은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일에 더욱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김성우 기자

### 청불회 “종단과 정부 튼튼한 가교역할” 다짐



청와대불자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강윤구 청불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랍 29일 조계사에서 송년법회를 진행했다. 사진=박재원 기자

청와대불자회(회장 강윤구, 이하 청불회)가 구랍 2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무자년 송년법회를 열고 불교계와 정부의 가교 역할을 다짐했다. 강윤구 대통령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의 취임 축하연을 겸한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홍파 스님, 총회종 총무원장 남정 스님, 열반종 총무원장 해국 스님, 조계사 주지 세민 스님, 김의정 중앙신도회장, 정동할 경호처 인사부장(청불회 서관의 취임 축하연을 겸한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 교단자정센터, 폭행사건 스님 처벌 촉구

최근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모사찰 스님들간의 폭력 사건과 관련, 교단자정센터(대표 김희숙)가 승가 위계 확립을 위한 강도높은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단자정센터는 구랍 30일 논평을 통해 “조계종 호법부장을 지낸 모 스님의 막행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일부 스님들의 막행을 정화적 차원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자정 기준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이어 “청정승가 전통과 위계를 훼손하는 일부 출가자에 의한 사건사고는 종단 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승중 진작과 위계 회복 차원에서 해당 스님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한 계도와 처벌을 하라”고 촉구했다. 김성우 기자

### 社告

### ‘법보시’로 다함께 깨닫는 세상을..

본사에서는 국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기관, 특수법인, 각종 학교 등 공공기관에 현대불교 보내기 캠페인을 벌입니다. 한 장의 ‘호법보시’인 현대불교는 불교문화와 불교를 제대로 알리는 포교기능과 종교편향 및 해를 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 불교를 외화하고 불법을 널리 전하는 최일선의 포교사가 될 것입니다.

- 법보시 대상**  
군법당, 병영, 교도소, 각종 학교 및 공공 도서관/청와대 각부서/국회의원실/정부(15부 2처) 경찰청/지방자치단체/각급 교육기관/전국 공공도서관/군부대
- 법보시 후원 안내**  
-법보시는 1구좌 1,000원이상 -계좌: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문의** 대표 (02)2004-8200

###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김봉환(前 KBS동아시네마영상감독, 강원대 영상학강사)

문의 : 02-2004-8279

## 동학사 승가대학 신입생·편입생 모집

- 모집학과**  
- 사미니과 00명 - 사집과 0명

- 시험과목**  
면접, 영불심기, 사미니율의, 불교기초교리, 초발심사경문

- 입학자격**  
사미니계 수지자, 타 승가대학인 경우 1년 이상 휴학한 스님

-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 1통  
2) 주민등록증 양면복사 ..... 1통  
3) 은사스님 추천서 ..... 1통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1통  
5) 증명사진 ..... 2매  
6) 건강진단서

- 준비물**  
만의가사, 장삼, 승려증, 필기도구

- 원서접수 및 마감**  
2008년 12월 15일(음, 11월 18일) - 2009년 1월 14일(음, 12월 19일) 오후 4시까지

- 시험일시**  
2009년 1월 15일(음, 12월 20일) 단, 2009년 1월 14일 오후 4시까지 도착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789번지 동학사 중무소  
전화 042)825-2570  
팩스 042)825-6068

대한불교조계종 동학사 주지 견성 | 동학사 승가대학 학장 해주

## 동학사 화엄학림 전문과정 제1기 학인 모집

- 모집요강**  
◇전문과정 응시자격 : 기본 교육기관 졸업자(타 강원 포함), 졸업예정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구니.  
◇특 전 : 전문과정 2년 졸업자는 종단 학림령에 의거해 불교학 관련 석사과정 이수자와 동등한 자격이 부여됨. 연구기간 중 연구비 지원, 졸업 후 증강(부교수) 자격 부여.
- ◇모집인원 : 10인 이하 - 전문과정 2년
- ◇교 과 목 : <대방광불화엄경>(80권·60권), 법문 <십지경>, <사분율>, <십지경론>, <정량소초>, <통헌론>, <일승법계도>, 화엄사상사, 선사사사, 불교교리사, 기타 제교학, 영어

-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 학림 소정양식) ..... 1통  
2) 주민등록증 양면복사 ..... 1통  
3) 은사스님 추천서 ..... 1통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1통  
5) 승가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6) 건강진단서  
7) 수행 이력서  
8) 학업 계획서  
9) 사진 5장(3×4)

- 원서교부**  
동학사 중무소 및 동학사 홈페이지

- 원서접수 및 마감**  
2008년 12월 15일(음, 11월 18일) - 2009년 1월 14일(음, 12월 19일) 오후 4시까지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 전형일시** : 2009년 2월 16일(음, 1월 22일) 오후 1시

- 입학일** : 2009년 2월 20일(음, 1월 26일)

- 준비물** : 가사, 장삼, 승려증, 필기도구, 세면도구

- 문의처** :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789번지 동학사 중무소  
전화 042)825-2570 / 팩스 042)825-6068  
기타 자세한 것은 동학사 홈페이지  
(http://www.donhaksa.or.kr) 화엄학림 정규 참조

대한불교조계종 동학사 주지 견성 | 동학사 승가대학 및 화엄학림 학장 해주